

양봉농가 경영안정자금 1년 상환 연장

양봉협회 농림부에 지속건의로 2차 연장 확정 대출잔액의 50% 우선 상환 후 1년 유예

올해 9월 상환예정인 양봉농가 경영안정자금 상환일이 1년 연장됐다.

한국양봉협회는 올해 역시 2004년과 마찬가지로 아카시아 벌꿀 흉작에 따른 양봉농가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림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2006년에 이어 올해도 경영안정자금을 연기하였다.

이에 따라 이번 달(9월) 상환예정인 경영안정자금은 상환예정인 대출잔액의 50%를 우선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1년간 상환기간이 연장된다.

협회는 올 초부터 경영안정자금을 2년간 연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펼쳤으나 농림부에서는 경영안정자금을 2회 연속 연기해준 축종도 양봉밖에 없으며 2년 연장은 어렵다는 뜻을 확고히 했다.

농림부는 “최근 벌꿀 흉작에 따른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고려하고, 향후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1년 연장을 결정했다”며 “그러나 구좌당 평균 대출 금액이 소액으로 대출잔액의 50%는 상환해야 축발기금의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04년 경영안정자금 지원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대 출 액	상 환 액	상 환 잔 액 (09년 6월 기준)	비 고
양봉농가 경영안정자금	25,663	11,264	14,309	· 대출실행 : 04. 9월~ · 지원조건 : 2년 거치 일시 상환 연리 3% · 1차 연기 : 06. 8월 · 2차 연기 : 09. 8월

주) 실 대출구좌수는 4,814로 구좌당 3백만원 수준임

■ 경영안정자금 상환 연기(1년)

조 건 : 대출잔액의 50% 우선 상환 후 1년간 상환기간 연장 **양봉**